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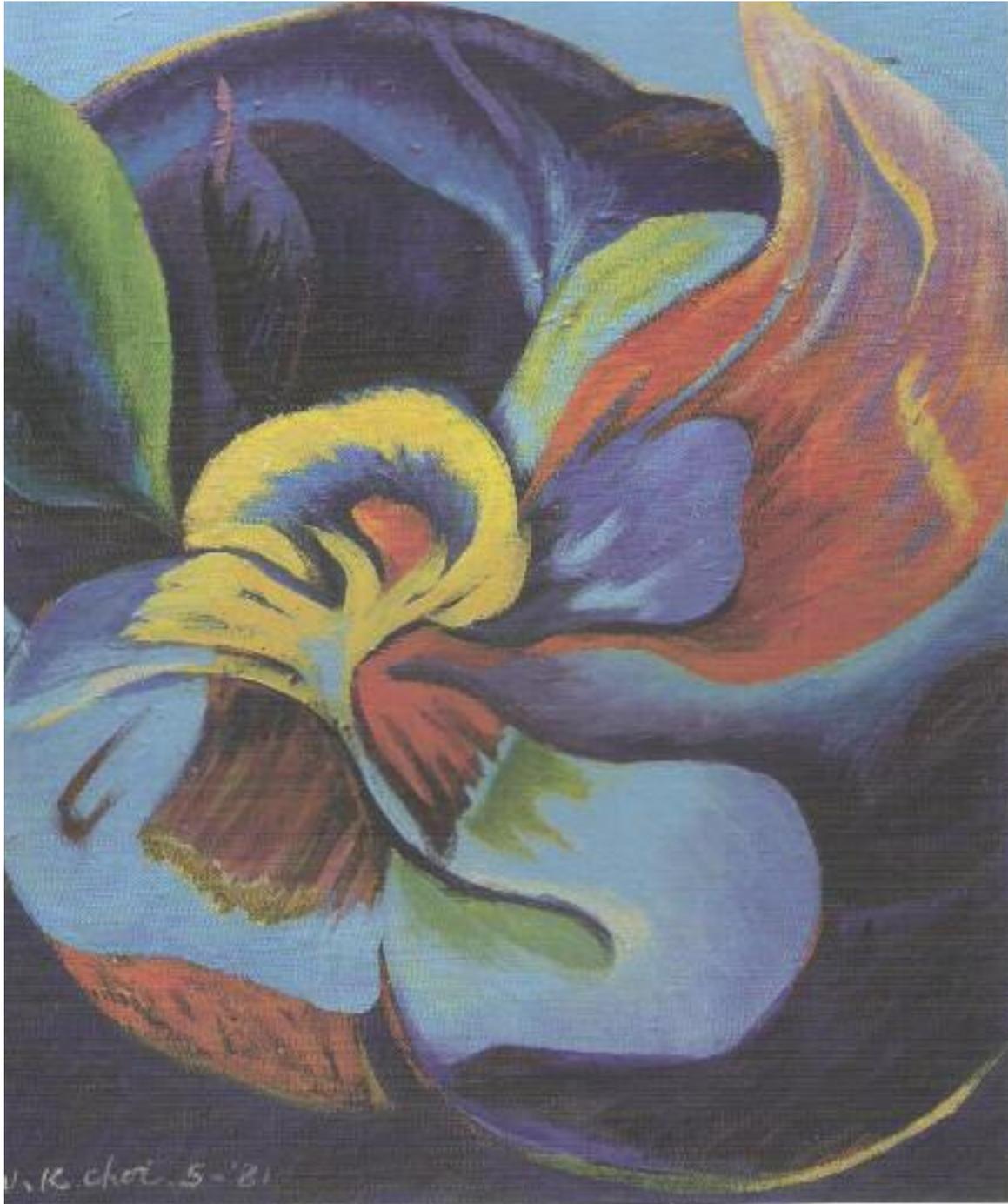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5

2013 <http://www.ucac.or.kr>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



4.19~5.19(31일간)

제1 전시장

■ 입장권 : 성인 5천원 학생 2천원
유료회원 및 단체
(10인 이상) 30%,
학생단체 50%할인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C / O / N / T / E / N / T / S



04 기획공연 | 그와 그녀의 목요일
스위트 콘서트
모닝 콘서트



10 시립예술단 공연 | 시립교향악단 가족음악회
시립교향악단 제165회 정기연주회
시립합창단 제82회 정기연주회
시립합창단 봄꽃음악회
시립무용단 캐나다 해외공연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27회 정기연주회



19 기획전시 | 한국 현대 미술 특별전
22 예술을 말하다 | 이탈리아 오페라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예술축제를 찾아서
세계의 문화도시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

32 공연·전시가이드 | 5월의 공연·전시



가정의 달 5월호 표지
· 한국 현대 미술 특별전 출품작
· 작가명 : 이만익(1938~2012)
· 작품명 : 가족도(91×72.7cm)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5월호 통권 164호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 (달동 413-13)
T.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발행인 | 이형조 편집인 | 안종철
기획·편집 | 박용하, 고순영
편집 |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제작 | 예성인쇄기획 T.052-227-3884

어느 날, '그와 그녀'에게 '특별한 목요일'이 시작됐다.

거창한 주제로 시작된 그들의 지적인 대화는

어느새, 둘만의 특별한 추억으로 흐른다.

하. 지. 만. '추억'이라고

다 축축하고 아름답기만 할까?

결혼 빼고 다 해본 그와 목그녀의 목요일

2013. 5. 10(금) 오후8시
5. 11(토) 오후3시, 6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출 연 : 배종옥, 조재현, 성열석, 조윤지, 김수량, 김정원
- 관람등급 : 중학생이상 입장가능
- 입장권 : 전석 4만원
회관회원은 30%,
단체(10매 이상)는 20% 할인



대한민국 연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연극열전>이 제작한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이 2013년 5월 10일, 11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연된다.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은 서로를 모르고 살아온 시간보다 알고 지낸 시간이 더 긴 이성 친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자신들만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독특한 상황 설정에서 시작된 로맨틱 드라마다. 그들의 대화는 비겁함, 행복, 역사 등 거창한 대화로 시작되지만, 결국 비겁했고 행복했던 자신들의 이야기로 흐르며 과거와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매번 사소한 싸움으로 번지면서 갈등으로 치닫지만, 또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확인하는 아이러니를 제공한다. 작품은 '친구와 연인 사이'라는 독특한 커플의 에피소드를 그리는 듯 하지만, 그들의 사랑, 갈등, 화해를 통해 '그'와 '그녀'라는 남녀의 본질적 차이와 인생에 대해 이야기한다.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월터폴 마마'에서 명품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가운 도시적인 매력 속에서도 수줍은 소녀 감성을 간직한 배우 배종옥이 은퇴한 국제 분쟁 전문 기자 연옥 역을, 날 선 카리스마와 장난기 넘치는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배우 조재현이 화려한 입담의 저명한 역사 학자 정민 역을 맡아 친구와 연인 사이의 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노련한 중년의 커플을 연기한다.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은 '사랑'이라는 보편적 소재로 친근하게 다가가고,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캐릭터와 독특한 상황 설정, 그리고 지적인 대사의 향연으로 연극 마니아는 물론 중·장년층 관객까지 만족할 만한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과 이별을 반복했던 한 남녀의 로맨틱한 우정

저명한 역사 학자 교수 정민과 은퇴한 국제 분쟁 전문 기자 연옥.

50대, 인생의 황혼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은 한 때 뜨겁게 사랑했고 이별했었다.

서로를 모르고 살아온 시간보다 알고 지낸 시간이 더 긴 이들의 관계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결혼' 빼고 다 해 본 사이!

매주 목요일, 주제를 정해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하는 정민.

그런 갑작스런 제안에 묘한 설레임을 느끼는 연옥.

그러나 둘만의 특별한 목요일은 매번 사소한 싸움으로 번지면서 과거의 오해들이 되살아나고

함께했던 추억에 대해 얼마나 다르게 기억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데...



첫 번째 목요일
Mission, 약속

어느 날 갑자기, 정민은 연옥을 찾아와 매주 목요일마다 주제도 정하고, 약속을 하고 만나자고 제안 한다. 약속?

두 번째 목요일
Mission, 비겁함

정민은 비겁함은 용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비겁할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정민과 연옥'이라는 말과 함께...

역사는 기억을 왜곡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상상력이나 욕망을 투영하는게 아니라 일정한 형식미를 추구한다는 거창한 대화는 역사적인 그들의 첫날밤으로 옮겨간다.

세 번째 목요일
Mission, 역사

네 번째 목요일
Mission, 행복

과거의 편지로 대신한 정민과 연옥의 행복. 정민은 결혼과 성공으로 행복해하고, 동시에 연옥은 아이가 생겼다면 행복해한다. 그와 그녀는 행복했지만, 함께 행복하지는 못했다.

다섯 번째 목요일
Mission, 관계

연옥, 정민과의 관계가 여전히 혼란스럽다. 우리가 친구야? 애인? 아니면 섹스파트너? 부부?

여섯 번째 목요일
Mission, 이별

또 다시, 도망치듯 떠나는 연옥이 안타까운 정민은 항상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않은 연옥의 상처를 꼬집으며, 그 동안 참아왔던 속내를 터뜨린다.

사랑과 이별, 용서와 화해,
애정과 증오. '사랑'이라는 말 앞에,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들.
'결혼 빼고 다 해본' 그와 그녀의 매번
엇갈리는 대화.
사랑의 결혼은 꼭 '결혼'일까??

스위트콘서트로

울산

이 달콤해진다

조희의 뮤지컬 talk



Gala Concert Musical

스위트콘서트 '로 울산이 달콤해진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스위트콘서트'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자체제작공연으로 올해 시즌6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4년간 진행되었던 스위트콘서트는 뮤지컬 배우 백재현, 강효성, 김선영, 홍지민, 김호영, 최정원 등 쟁쟁한 스타급 뮤지컬 배우들이 거쳐간 울산문화예술회관의 대표적인 상설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는 국내 대형뮤지컬에 빠지지 않고 최정상급 배우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뮤지컬 배우 '정선아'와 재치 있는 입담과 연기력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뮤지컬 배우 '조휘'가 콘서트를 이끌어 간다.

'2013 스위트콘서트'는 오는 3월 7일 첫 공연으로 시작하여 7월 11일, 11월 7일은 '정선아의 뮤지컬 갈라콘서트'로, 5월 14일, 9월 12일, 12월 13일은 '조휘의 뮤지컬 토크'로 진행된다.



• 조휘



• 김경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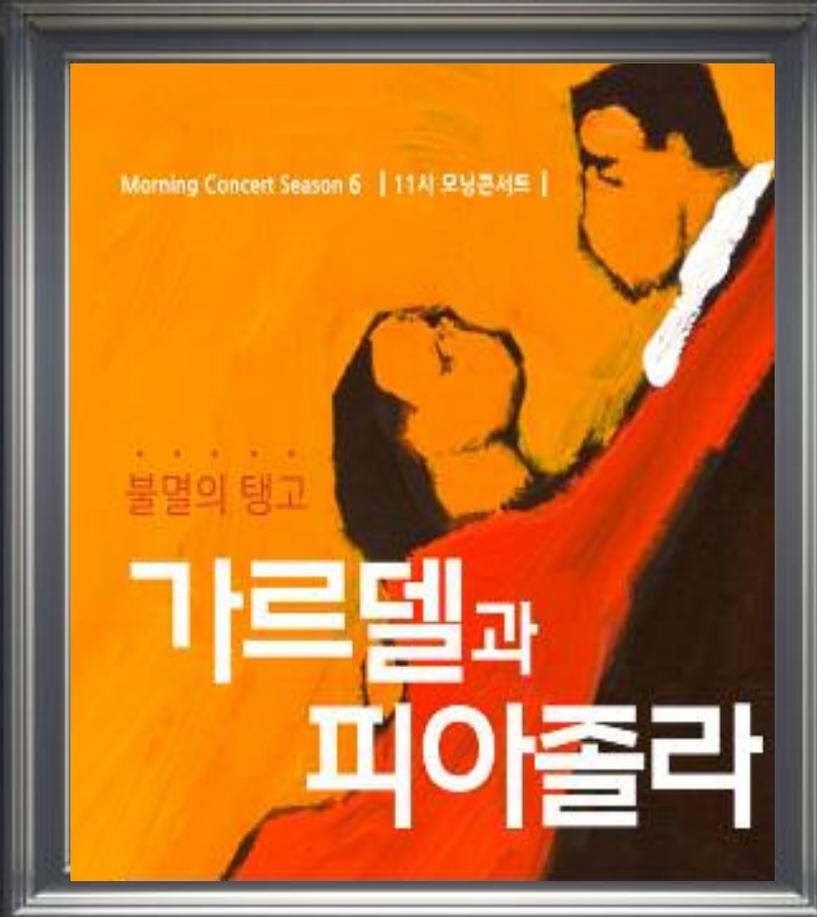
• 한지상

오는 5월 14일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조휘의 뮤지컬토크로 울산시민과의 첫 만남을 준비하고 있으며 넥스트노멀, 지저스크라 리스트 슈퍼스타로 가창력을 인정받은 뮤지컬 배우 한지상과 브룩클린, 달고나에서 열정적인 무대로 선보였던 뮤지컬 배우 김경선 그리고 뮤지컬 갈라팀 아이린이 출연한다.

이들은 조휘와 함께 무대 뒷이야기들을 통해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을 들려준다.

2013. 5. 14(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출연 : 조휘 김경선 한지상 아이린
- 입장권 : 1만 5천원
회관회원은 30%,
단체(10매 이상)는 20% 할인



음악평론가 이 현 석



Vn 여근하



Vn 김주은



Va 임경민



Vc 박한나

Vn 여근하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독일 바이마르 음대 디플롬,
- 동 대학 Aufbau-studium
- 독일 바이마르 국립교향악단, Junge Deutsche Philharmonie 단원 역임
- 진주시립 교향악단 악장 역임
- 서울 심포니, 진주시향, 미국 LMU첼버, 독일 Max Bruch Phil. 등과 협연
- KBS 1FM "KBS음악실", "FM김경옥의 월드뮤직" 출연
- 현, 선화예술고, 강사, 서울 펠리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HYUM 오케스트라 악장

Vn 김주은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디플롬
-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실내악과정 졸업
- 독일 Neues Kammer Orchester단원, La Tramontana 단원,
- Detmold Barok Akademie 수석 역임
- 독일 윈스터 시립 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에서 다수 연주
- 현, 코리아슬로미츠 오케스트라 수석, HYUM 오케스트라 수석, 의왕시 오케스트라 악장

Va 임경민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독일 만하임 음대 디플롬, 우수연주자 독주회
- 독일 만하임 Streicher Kammermusik, Frank-Heidelberg 순회연주
- 독일 만하임 Hochschule Orchester 수석역임
- Seoul-Mannheim Phil. 독일, 미국 예일 대학, 뉴욕 카네기홀 순회 연주
-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 현, HYUM 오케스트라 수석, 서울 스트링 앙상블 단원

Vc 박한나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독일 도르트문트 음대 Diplom
- 독일 Allenberg 실내악 멤버 역임
- 뉴 서울 필하모닉, 진주시립합창단, 덕원예술고 동문 음악회 협연
- 일본 오카야마 초청 연주, 예술의 전당 귀국 독주회
- DASA Kammer Konzert, Bach Musiktage in Rattlingen, Bochum 등 다수 연주
- 현, HYUM 오케스트라 수석, 카메라타 서울 앙상블 단원

찬란한 탱고의 시작과 끝, 가르멜 VS 피아졸라의 탱고 콘서트

1880년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동남쪽에 위치한 항구도시 보카에서 탄생한 음악 탱고는 유럽 음악과 아프리카 음악, 아르헨티나 음악 등 다양한 음악 양식이 결합해서 탄생한 일종의 퓨전 음악이다. 처음에는 지하 문화로 출발했지만 점차 주류 음악으로 부상했고, 20세기 접어들어서는 전세계가 사랑하는 대중음악이자 예술음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탱고 음악이 오늘날의 위상을 갖게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작곡가 겸 연주자가 두 명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카를로스 가르멜과 아스토르 피아졸라다.

탱고의 대중화를 선도했던 가르멜의 [포르 우나 카베자],[나의 사랑 부에노스아이레스] 과 탱고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라 꿈빠르시타]등 대표작을 엄선해서 공연하는 고품격 탱고 콘서트.

진행자와 연주자가 함께 진행하는 새로운 형식의 토크 & 라이브 콘서트

베스트셀러[열려라 클래식]과 [이럴 땐 이런 음악]의 저자이자 KBS [명작스캔들]의 고정 게스트이고, [EBS 해외 특선공연]의 진행자였으며, 현재 KBS 임백천의 라디오 7080, 이현우의 음악앨범 등의 각종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이현석이 들려주는 경쾌하고 재미있는 해설!

아울러 우리 시대의 음악인 탱고에 대해 보다 흥미롭게 접근하기 위해 콤팩트 수의 리더 여근하와 함께 탱고의

매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한다.

K 클래식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콤팩트 수의 탱고 콘서트

[한국의 탱고 전도사]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콤팩트 수의 열정적이고 서정적인 탱고의 향연! 여근하[바이올린],김주은[바이올린],임경민[비올라], 박한나[첼로] 등 독일에서 수학한 여성 연주자 4명이 의기투합하여 조직한 콤팩트 수는 단 기간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사중주단이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유연한 연주를 들려준다.

이들은 단순히 탱고의 명곡들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해 초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날 공연에서도 작년에 첫 선을 보였던 한국의 세계적인 현대 음악 작곡가 이재신의 [올라 인천탱고]도 연주한다.



2013.5.30(목) 오전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출연 : 이현석(사회)
여근하 김주은(Vn)
임경민(Va) 박한나(Vc)
- 입장권 : 전석 7천원
회관회원은 30%,
단체(10매 이상)는 20% 할인)

교향악단 특별기획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

갈라콘서트



5월 3일에서 4일 양일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기획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모차르트 오페라『마술피리』(Mozart / 『Die Zauberflöte』, K.620) 갈라콘서트가 펼쳐진다. 원작은 2시간 30분이 넘는 대규모의 오페라이지만 주요 하이라이트만을 발췌하여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오페라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 기존의 음악과 줄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과격적이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연극과 오페라가 결합된 이번 갈라콘서트는 5월 어린이날 자녀들과 어떻게 지낼지 고민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공연은 재미있는 오페라공연 뿐만 아니라, 공연장 로비에서 악기체험도 가능하며, 공연 후에는 출연진들과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포토존 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무대 고대 이집트. 큰 뱀에 쫓기던 왕자 타미노는, 밤의 여왕 세 시녀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고 밤의 여왕을 만난다. 타미노는 그녀로부터 자라스트로는 폭군으로 그녀의 딸 파미나를 그가 납치해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파미나를 구출하기로 결심한다. 밤의 여왕이 건네주는 마술의 피리를 가지고 새 사냥꾼 파파게노와 함께 적지에 잠입한 왕자 타미노는, 사실인 즉, 여왕의 말과는 정반대로 자라며, 악과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밤의 여왕으로부터 청순한 딸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타미노와 파미나 두 젊은이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은 뒤에야 사랑이 맺어지는 운명인지라 두 사람은 많은 시험과 험한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사랑의 승리를 얻는다. 한편 익살꾼 광대갈

은 새잡이 파파게노도 그와는 천생연분인 파파게나를 아내로 얻게 되어 우쭐거린다. 밤의 여왕이 복수를 꾀하지만 이는 물론 실패로 돌아가고, 파미나를 탐냈던 검둥이 악당 모노스타토스와 더불어 지옥에 떨어짐으로써 끝을 맺는다.

1. 모차르트 음악 특유의 감성과 익살이 살아있다.

모차르트의 마지막 작품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음악과 더불어 그 특유의 감성과 익살이 그대로 녹아 있는 모차르트 오페라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오페라계에서는 꼭 보아야 할 오페라의 교과서라고도 불리운다.

2. 모험과 환타지의 극적구성과 선과 악에 대한 철학이 있다.

〈마술피리〉는 어느 영화의 시나리오보다 더욱 극적인 구성을 통해 모험과 환타지의 세계로 관객들을 인도한다. 또한 주인공 타미노를 비롯하여 밤의 여왕, 자라스트로, 파파게노 등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게 하며 선과 악이 단순히 보이는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될 수 있음을 반전에 반전을 통해 보여준다.

3. 노래와 함께 적절한 대사의 구사로 극의 재미를 더한다..

기존의 오페라가 노래만으로 극을 진행했던 것에 반하여 이번 오페라 〈마술피리〉는 적절한 대사를 통해 연극적인 재미를 더해준다. 순간순간 전해지는 재치있는 대사들은 관객들의 즐거움을 더해 주며 특히 본 공연에서의 눈높이에 맞춘 대사들은 관객들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아리아

2013. 5. 3(금) 19:30

5. 4(토) 16: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휘 : 정병휘
- 연출 : 김성경
- 출연 : 전병호 신승아 강경원 윤현숙
마혜선 김정권 김정대 김정현
윤현주 김영지 정원혁
- 입장권 : 전석 1만원
회관회원 30%할인,
가족3인 이상 20% 할인
48개월 이상

- 나는 새잡는 사람
(1막1장 / 파파게노)
- 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1막 1장 / 타미노왕자)
- 사랑스런 연인이나 아내
(1막2장 / 파파게노)
-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
(1막 2장 / 파미나, 파파게노)
- 오시리스 신이시여
(2막 1장 / 자라스트로)
- Pa, pa, pa
(2막 2장 / 파파게노, 파파게나)

名作 III 제165회 정기연주회

바그너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



올해는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완벽한 지휘법으로 울산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홍재 지휘자의 명작시리즈 3번째 순서로 바그너 편이다. 리하르트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 - 1883)는 독일의 라이프치히 출신으로 이태리 중심의 오페라를 독일의 악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하여 <로엔그린>, <뤼베클룽겐의 반지>, <트리스탄과 이졸데>, <발퀴레> 등과 같은 혁신적인 작품들을 통해 독일 오페라의 꽃을 피웠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바그너의 작품 중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서곡이 연주된다. 이 작품은 1841년에 완성하여 1843년에 초연하였는데, 신을 모독한 죄로 영원히 항구에 돌아갈 수 없게 된 네덜란드 사람의 배가 희망봉 근처나 북해를 떠다닌다는 북유럽의 전설을 소재로 하였으며,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곡은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주곡 & 사랑과 죽음'이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중세 유럽 전설의 하나인 고대 켈트 인의 옛 전설을 바탕으로 하여 트리스탄과 백부(伯父) 마르크의 왕비 이졸데의 사후(死後)에 맺어지는 슬픈 사랑 이야기이다. 이 전설을 바탕으로 작곡한 것으로, 동기(Leitmotiv)의 중시, 무한선율(無限旋律)의 사용, 조성(調性)의 붕괴 등 음악 기법상 획기적인 면모를 이 작품을 통해 바그너가 선보였다. 이곡은 1865년 초연되었다.



지휘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

마지막 곡은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중 '전주곡 Prelude'이다. 당시 뉘른베르크는 자유 도시로 북유럽 르네상스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 명가수들은 수공업에 종사하는 장인들로, 예술을 사랑하며 노래를 전통적인 형식으로 계승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기사인 슈톨칭이 에바와 사랑에 빠지고, 에바의 아버지 포그너는 다음날 성 요한 축일에 열리는 마이스터징거 노래대회 우승자에게 전 재산과 함께 딸 에바를 주기로 하고, 슈톨칭은 사랑하는 에바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막 구성의 이 오페라작품은 연주시간만 4시간이 넘는 대작으로 바그너가 직접 대본까지 썼으며, 1868년에 초연되었다.

2010년 최고 권위 제네바 콩쿠르 2위

- 국내 한국일보 콩쿠르, 조선일보 콩쿠르, 이화 경향 콩쿠르, 대구방송 콩쿠르, 음연 콩쿠르, 부산음악 콩쿠르 대상(문광부 장관상) 등 다수 콩쿠르 석권
- 신시내티 국제 콩쿠르 1위, 영 쇼팽 콩쿠르 1위, 에피날 국제 콩쿠르 2위, 제네바 국제 콩쿠르 2위 및 세계 주요 콩쿠르 석권
- 체코 출린시향, 폴란드 크라코프 오케스트라, 북체코 필하모니, 비엔나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이태리Grosseto오케스트라를 포함 해외 유명오케스트라와 협연
- 서울시향, 대구시향 및 2011년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무대에서 대전시향 협연
- 2011년 11월 유럽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음반 출시 예정
- 파리고등국립음악원 졸업(자코 루비에 사사) 및 현재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
- 2012년 1월 금호아트홀 신년음악회 (영아티스트 리사이틀) 연주



차세대 피아노 트로이카로 지목된

피아니스트 **이효주**

이번 연주회의 협연자는 피아니스트 이효주이다. 이효주는 2010년 최고권위의 제네바 콩쿠르 2위를 차지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손열음, 김규연과 함께 차세대 피아노 트로이카로 지목된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고귀한 음악적 카리스마로 강렬한 무대 매너를 보여주는 연주자이다. 북체코 필하모닉, 비엔나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등 해외 오케스트라와 국내에서는 서울시향과 대구시향을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대전시향과 교향악축제 협연자로 각광받았다. 현재 유럽과 국내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매력적인 탑 아티스트로 이번 울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에서는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Grieg / Concerto for piano in a minor, op.16)을 들려준다. 전세계 공연장에서 청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피아노 협주곡의 하나로 사랑받고 있는 이 곡은, 무거운 중앙유럽의 낭만주의와는 달리 북유럽적인 서정성을 띠고 있다. 파스하고 밝으며, 장중하면서 또한 민족적인 곡으로 그리그의 <페르귄트>와 함께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 곡의 조성이나 첫 악장을 시작하는 방식 등 여러면에서 로베르트 슈만의 스타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3. 05. 16(목)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휘 :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
- 협연 : 피아니스트 이효주
- 입장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창단 20주년 기념 제82회 정기공연

<음악극> 아~결혼

창단 20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국립합창단에서 초연한 창작 칸타타 <아~ 결혼>을 울산시립합창단의 색깔로 각색하였다. 오케스트라 반주와 함께 독창, 중창, 합창 등 다양한 형식으로 연주되는 노래와 더불어 연극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대규모 음악극으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실험적인 음악회로 기획하였다.

마음씨 착한 공주와
몰락한 양반 이생원의
사랑과 결혼이야기

program



- 태평성대(합창)
- 누구일까?(공주 독창)
- 숨기려 했죠(이생원 독창)
- 내 손을 잡아요
(공주, 이생원 이중창)
- 왕께서(합창)
- 갔네 갔네(합창)
- 나는 가졌어(이웃왕자 독창)
- 여기저기(합창)
- 내 잘못 때문에(왕 독창)
- 공주님을 웃게 하는 자(합창)
- 산토끼의 반대말(이생원과 합창)
- 공주님이 웃었네(합창)
- 혼례예식 거행하세
(솔리스트, 어린이 합창, 합창)

2013. 5. 7(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휘 : 구 천
- 연출 : 박태환
- 출연 : 필하모니아 서울 오케스트라
KBS울산어린이합창단, 연기자 6명
- 관람등급 : 만 5세이상 입장가능
- 입장권 : 전석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가족3인 이상 20% 할인



봄꽃음악회

생태환경도시로서의 울산 이미지를 널리 알리며 울산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태화강대공원 봄꽃향연'은 초화단지에서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2주간 펼쳐지는 '봄꽃 향연'의 행사 중 첫 날 개막공연으로 꾸며질 울산시립합창단의 『봄꽃 음악회』는 '나물캐는 처녀' '진달래꽃' '수선화야' '서생배꽃' '목련화' 등 봄에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하였다.

꽃밭 위에 꾸며진 특설무대에서 눈과 코로 느끼는 봄의 만찬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엮어 오감을 취하게 하는 멋진 연주회를 울산시립합창단의 하모니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지휘 / 구 천

2013. 5. 16(목) 오후 8시
태화강대공원 특설무대

- 지휘 : 구 천
 - 출연 : 시립합창단
-



시립무용단 대외공연

2013. 5. 17(금) 20:00
캐나다 밴쿠버 퀸엘리자베스 대극장

- 안 무 :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 무대감독 : 김진수
- 조명감독 : 김남웅
- 음향감독 : 황재영



시립무용단 대외공연





올해는 한국과 캐나다가 국교를 맺은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동안 한국과 캐나다는 수교 이래 사회 전반에 걸친 활발한 교류활동으로 두 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의를 돈독히 하여 왔으며 이제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두 나라는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뜻깊은 해에 울산시립무용단이 캐나다 밴쿠버 한인회의 초청으로 한국의 전통미를 자랑 할 수 있는 큰 무대에 서게 된다.

이번에 울산시립무용단이 보여주는 작품은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경쾌한 리듬과 화려한 춤사위에다 러브판타지를 더한 새로운 흥미와 감동을 주어 교민들에게는 아련한 고향의 향수를, 캐나다 현지 시민들에게는 동·서양의 지역적 경계와 언어를 뛰어 넘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며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프롤로그

바람에 피고지고(오고무)

- 1장 : 가여운 꽃
- 2장 : 길은 어드메 있는노
- 3장 : 꽃잎은 달빛에 흩날리고
- 4장 : 꽃길을 가려하나
- 5장 : 연분이 피어나네
- 6장 : 꽃길 바람에 피고 (비상)

에필로그

바람에 피고 지는 꽃길



Fun 음악회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모여있는 가정의 달이다. 오는 5월 28일 청소년교향악단이 제27회 정기연주회로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Fun 음악회』를 개최한다. 『Fun』이란 말은 재미, 즐거움을 주다란 뜻으로 연주회의 전체 프로그램이 모두 귀에 익은 선율이며 흥미와 재미가 가득한 프로그램이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제2번 작품을 시작으로 뮤지컬 ‘맘마미아’와 ‘사운드오브 뮤직’ ‘그리스의 주요 하이라이트’와 ‘이웃집 토토로’ 등 애니메이션 OST 그리고 디즈니사의 대표작이기도 한 ‘라이언 킹’의 OST 등, 남녀노소 모두가 쉽고 편하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특별초청 순서로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금관6중주 연주팀인 퍼니밴드가 함께 한다. 퍼니밴드팀은 코믹한 연출로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는 국내 최초의 퍼포먼스 브라스 앙상블 그룹이며 예술성과 대중성의 화합을 추구하며 수준 있는 정통 클래식 연주는 물론 콘서트마임,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비보이댄스를 가미한 연주 등 생동감 있는 율동과 창의적인 레퍼토리로 코믹과 재미를 선사하는 공연팀으로 유명하다.

푸르른 5월,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마련하는 “Fun 음악회”에 온가족이 참여하여 즐겁고 편안한 시간까지 보면 어떨까?



2013.5.28(화) 오후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지휘 : 김종규
- 출연 : 시립청소년교향악단
- 협연 : 퍼니밴드
- 지도자 : 최미경, 이지혜, 김성덕, 김상조
- 입장권 : 전석 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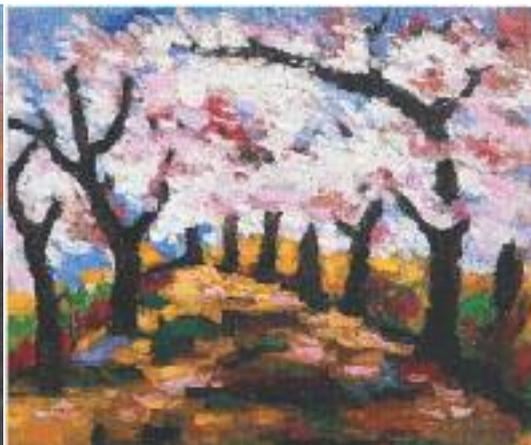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명작들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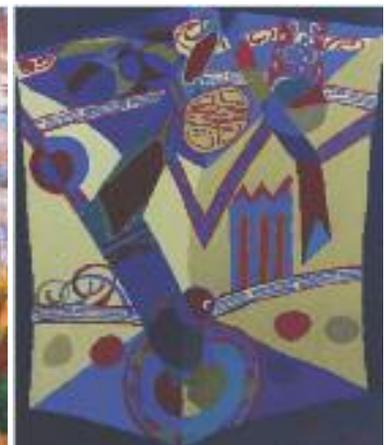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에서는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는 5월19일까지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김창열, 김환기, 김홍수, 박생광, 이대원, 이우환, 장욱진, 천경자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뛰는 거장 29인의 작품 총 50점이 울산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 최옥경<꽃>



• 박고석<쌍계사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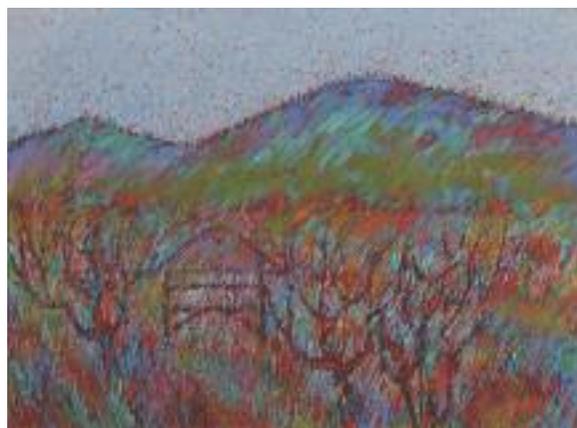


• 전혁림<구성>

“한국 모던아트의 정착과 확장”이라는 주제로 191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미술의 역사를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변시지<제주여인>



• 이대원<농원>

우리 미술사에서 ‘근대’는 서양미술이 유입된 시기부터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말까지로 이시기 작가들은 유화라는 새로운 재료를 익히고 다양한 사조를 동시에 받아들였다. ‘현대’는 그 이후 시기로, 근대의 다양한 실험을 거쳐 독자적인 화풍을 확립하고 국내 뿐 아니라 동시대 해외미술계와 소통하며 현재에 이르러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모던아트의 정착과 확장

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 들어서면 일본에 의해 수용된 서양미술의 다양한 사조들을 받아들이던 시기를 거쳐 식민지 치하 민족의 아픔과 전쟁의 상처, 개인적인 고민과 이념의 대립, 사회문제를 넘어서 조형적 탐구에 매진하던 우리 근현대 미술사의 다양한 면모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 김환기<무제>



• 황염수<양귀비>



• 이우환<점으로부터>



• 임직순<항구>



• 박영선<누드>



• 권옥연 <풍경>



• 박서보<무제>



• 이만익<가족도>



• 장육진<아이들>

예술회관에서는 전시기간동안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전시작품 관람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11시, 2시, 4시, 6시 총 4번의 정규해설 시간이 있다, 이시간에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은 누구나 작품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10인 이상의 단체관람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매일 오전 10시, 12시, 3시, 5시 총 4회 별도의 해설 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거장들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란다.

2013. 4. 19(금)~5. 19(일), 31일간
제1전시장

- 입장권 : 성인 5천원, 학생 2천원
유료회원 및 단체(10인 이상) 30%
학생단체 50%할인

A watercolor illustration of a large, leafy green tree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A red bicycle with a yellow basket is parked on a path that leads from the tree towards the bottom right. The background is a soft, light green wash with scattered green leaves and small yellow dots. The overall style is soft and artistic.

Arts Friend

Part.1 예술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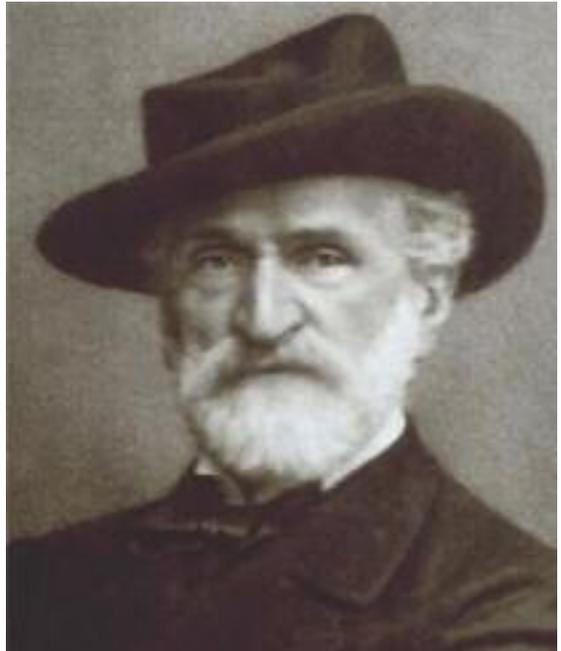
이탈리아 오페라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예술축제를 찾아서
세계의 문화도시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

Part.2 5월의 공연·전시

5월의 공연·전시 일정

이탈리아 오페라 5

베르디 (IV)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6편의 오페라를 작곡한 베르디가 이룩한 오페라의 개혁은 혁신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베르디는 앞선 이탈리아의 선배 작곡가들, 특히 롯시니, 도니제티, 벨리니가 이룩한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인 아름다운 멜로디와 뛰어난 기교를 중시하는 작곡 스타일을 이어받았다. 꾸준히 새로운 음악적 조류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어갔다. 동시에 당시 극장 관객들의 기호에 맞추어가면서 전통을 집대성하고 자신만의 특유의 오페라세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켰다.

성악가 개개인의 목소리와 음악적 기량에만 의존했던 바로크 오페라가 모차르트와 롯시니 시대를 거치면서 오페라의 대본과 구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악가 개인의 기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1840년대 초반 베르디가 처음 오페라계에서 활약하던 시절만 해도 이탈리아 오페라계는 벨칸토 오페라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다. 하지만 베르디는 초창기 ‘나부꼬’에서부터 단순하면서도 박력 있게 긴장감을 표현하는 자신의 음악적인 스타일을 드러낸다. 베르디는 오페라에서 연극적인 요소에 비중을 두며, 음악과 문학이 결합하여 극적인 표현을 이루는 시대를 열었다.

베르디 오페라는 대강 작곡시기에 따라 3시기로 분류된다. 초기 오페라는 첫 작품인 1839년 ‘오베르토’부터 ‘나부꼬’, ‘에르나니’, ‘맥베스’, ‘루이자 밀러’, ‘스티펠리오’ 까지, 중기오페라는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 ‘시칠리아의 저녁기도’, ‘시몬 보카네그라’, ‘가면무도회’, ‘운명의 힘’, ‘돈 카를로’ 까지, 후기는 1871년 ‘아이다’, ‘오텔로’, ‘팔스타프’ 까지이다(이 분류전문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함). 초기는 선배작품들을 모방하고 계승하면서 오스트리아 식민지배를 받던 이탈리아 국민을 고무시키는 민족적이고 선동적인 선



율이 주를 이루는 작품이다. 중기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개성을 확립시키는 작품들이 탄생된다. 본격적으로 인물들의 심리묘사와 극적인 표현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작품들이다. 후기에는 ‘아이다’에서 이탈리아 오페라를 집대성하고 완성한 후 ‘오텔로’에서는 이탈리아 전통을 바탕으로 바그너적인 구성을 가미한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으로 넘어간다.

베르디는 오페라의 소재를 문학작품과 역사적인 사건, 당시 사회의 일상 등에서 다양하게 채택하여 거리낌 없이 음악적으로 표현해내었다. 베르디 자신이 존경하던 수세기 동안 등장한 각국의 대문호들 작품으로 대본을 집필하였다. 셰익스피어(‘맥베스’, ‘오텔로’, ‘팔스타프’) 실러(‘루이자 밀러’, ‘돈 카를로’), 빅토르 위고(‘에르나니’, ‘리골레토’) 뒤마2세(‘라 트라비아타’), 구티에레스



(‘일 트로바토레’) 등이 그 작품들이다. 또한 다양한 역사적 배경도 베르디의 작품에 등장한다.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아이다’, 기원전 바빌로니아 왕국을 배경으로 한 ‘나부꼬’, 19세기 파리의 신흥 부르조아 사회를 다룬 ‘라 트라비아타’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그는 일찍이 대본에 깊은 관심을 가져 반(半) 대본가로 역할을 하였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운율 하나하나에까지 관여하면서 음악에 맞게 만들었고, 그 오페라의 내용과 주제를 음악적으로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원작을 변형하였다. 등장인물의 역할과 감정의 변화 갈등 등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본을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문학작품의 원작 훼손이라는 비난을 감수하여야만 했다.

하지만 베르디 자신은 이러한 원작의 희생은 오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전혀 개의치 않았다. 베르디가 대본에서 주요하게 다룬 점은 그 원작이 무엇이든 그 내용 속에서 운명의 삼각관계 혹은 가정사의 비극이다. 단절된 가정 내의 관계, 또는 운명에 의해 어쩔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다. ‘나부꼬’, ‘롬바르디아의 십자군’, ‘포스카리가의 두사람’, ‘시몬 보카네그라’, ‘가면무도회’

등은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지니지만, 베르디가 오페라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그 역사 속에 희생되는 인간의 비극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심리와 인물간의 설정 등을 음악적으로 나타내면서 오페라의 극적인 구성력을 완결 시킨 점이다. 베르디의 오페라 속에는 악역으로 나오는 인물조차도 그에 대한 이해와 변명이 있다. 나약한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운명에 언제나 베르디는 연민의 눈길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젊은 시절 가족을 모두 잃은 뒤에 느낀 한 인간으로서의 운명에 대한 성찰일 것이다. 이런 다양한 면을 음악적으로 나타내는데 베르디가 큰 비중을 둔 성악 영역은 바리톤이다.

베르디 이전까지는 테너 다음으로 베이스가 주요 역할을 했지만 베르디가 바리톤의 배역을 중시하여 오페라 작품의 전면에 배치를 시킨다. 베르디 바리톤은 대부분 아버지 역이다. 베르디 이전까지는 오페라 속의 사랑은 주로 남녀간의 수평적인 사랑이었지만, 베르디는 사랑이라는 주제에 ‘아버지’라는 존재를 삽입하여 세대간 혹은 계층간의 갈등으로 확장시킨다. 다시 말해 갈등의 요소가 더욱 다양해진 셈이다. 이것은 극의 입체적인 구도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로 오페라 발전에 기여한다.

베르디 오페라에서 바리톤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페라의 전면에 대두한다. ‘나부꼬’, ‘포스카리가의 두사람’, ‘리골레토’, ‘시몬 보카네그라’ 등은 제목 자체가 주인공의 아버지 이름이다.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루이자 밀러’,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등에서도 바리톤이 아버지 모습으로 주요한 배역을 맡고 있다. 사랑의 훼방꾼으로서 소프라노 여주인공이 목숨을 버리게 되는 주된 이유를 제공하는 아버지 바리톤이다. 이렇게 아버지 역할을 나타내는 바리톤을 부각시킨 이유는 베르디 자신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여러 감정의 요소가 자신의 작품에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테릴사위 같은 자신의 위치, 장인인 바레찌와 생부 사이의 갈등. 첫 아내와 아이들을 잃고 실의에 빠진 베르디를 다시 소생시킨 스트레포니와는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그녀와의 결혼은 결국 장인 바레찌와 결별을 의미하기도 하여 10년이나 동거한 이후 어렵사리 결혼했다. 하지만 바레찌를 저버렸다는 죄책감에 계속 힘들어했고, 자기 자신 또한 젊은 시절 자식을 잃은 이후 자식을 두지 못했다. 이런 개인사가 아버지를 나타내기 적당한 바리톤이라는 음역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또다른 주요한 이유는 당시 좋은 바리톤들이 대거 등장한 점이다. 당시 오페라들은 기존의 특정 가수를 염두에 두고 작곡하는 경우가 많았다. 베르디의 바리톤들은 특히 극적인 연기와 깊은 표현력이 필요하며 테너에 버금가는 고음이 필요하였기에 베르디 이후 바리톤의 역할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글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무용과 오페라) 발행인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오노레 도미에의 가르강튀아

〈그림1〉 도미에, 〈가르강튀아(Gargantua)〉, 석판화, 1831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한 사회의 지배층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할 때, 민중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 혁명처럼 기존 사회 질서를 전복하려는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풍자를 통해 이를 폭로하고 조롱하는 소극적인 공격을 더 자주 했다. 풍자는 대상의 잘못을 우회적으로 폭로하고, 권위를 우습게 만들어 대상을 깎아내리고 조소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 사회의 모순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싹튼 18세기부터 개화기 사이, 일제의 침탈이 극에 달하던 1930년대, 그리고 1980년대 군사정권 시대에 풍자 예술이 발달한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매일 신문에 게재되는 시사만평도 이런 풍자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시사만평은 19세기 말 신문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서유럽에서 시작되었고, 이 중 프랑스의 화가 오노레 도미에(Honoré Daumier)는 현대의 풍자만화의 아버지로 여겨진다. 만화와 그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시기, 그가 과장되고 생략된 필치로 재빨리 그린 작품들이 신문과 잡지에 실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풍자만화의 원형이 되었다. 프랑스 남부의 항구도시 마르세유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파리로 이주한 도미에는 어려운 가정 사정 탓에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15살 때부터 법률사무소 사환으로 일했다.

이 시기 심부름을 다니며 목도한 법정과 법조계 인물들

의 모습은 이후 그의 중요한 사회풍자 주제로 자리 잡는다. 정식 미술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사실 아카데미에서 그림을 배우고,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을 감상하며 습씨를 갈고 닦은 도미에는 20살부터 정치 풍자화를 기고하기 시작했다. 도미에는 서민을 착취하는 부패한 정치인과 법조인, 부르주아 등을 풍자했고, 심지어 국왕조차도 그의 펜을 피해갈 수 없었다.

〈카리카튀르(Caricature)〉 창간호에 실려 도미에를 일약 스타로 만든 작품인 〈가르강튀아(Gargantua)〉(그림 1)는 당시 프랑스를 통치하던 루이 필립(Louis-Philippe)을 풍자한 작품이다. ‘가르강튀아’라는 이름은 16세기 프랑스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프랑수아 라블레가 쓴 소설에 등장하는 거인에서 따왔다. 1830년 7월혁명으로 샤를 10세가 하야하고 루이필립이 왕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그 또한 탐욕스러운 독재자의 모습을 보였다. 도미에는 소설 속의 거인 대식가 가르강튀아의 이미지를 빌어 이런 상황을 풍자했다.

그림을 보면 왕의 얼굴을 한 거인이 비대한 몸뚱이를 하고 의자에 앉아 입을 썩 벌리고 있다. 바닥까지 길게 늘어진 그의 혀는 초라하고 낡은 옷을 입은 민중의 피땀 어린 재산을 거두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모인 세금은 가르강튀아-루이 필립을 살찌운 뒤 훈장과 서류의 모양으로 배설된다. 변기 의자 아래로는 잘 차려입고 훈장을 주렁주렁 단 기득권 인사들이 왕의 배설물 주변으로 몰려들

어 서로 이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그 뒤로는 의회가 희미하게 보인다. 심지어 왕의 발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상징하는) 삼각뿔 모자를 들고 떨어지는 “떡고물”을 씹는데 여념이 없다. 그의 대담한 정치 풍자는 보수적인 왕당파의 심기를 건드렸고, 국왕을 모독한 죄로 6개월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그는 일생 동안 4000여점의 정치풍자화를 그렸다. 가르강튀아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다른 식으로 그는 계속 왕을 풍자했는데, 서양 배로 변해가는 왕의 얼굴도 그 중 하나이다.(그림2) 프랑스어에서 배(poire)는 과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바보, 얼간이라는



〈그림2〉 도미에, 〈배(Les Poires)〉, 석판화, 1831년.

속어적인 뜻도 있다. 특별한 설명을 달지 않아도 이 캐리커처를 본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단박에 알아차리고 함께 웃었을 것이다. 머리 하나에 루이 필립의 얼굴이 세 개 달려 있는 초상화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화면의 왼쪽에 있는 과거의 왕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반면, 현재의 왕은 무뚝뚝하고, 미래의 왕은 더욱 완고한 얼굴을 하고 있다.(그림3)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도상



〈그림3〉 도미에, 〈과거, 현재, 미래 (Le passé, le présent, l'avenir)〉, 석판화, 1834년.

을 응용하여 도미에는 혁명을 통해 ‘시민 왕’으로 등극했지만 점차 구태의연한 독재자로 변해가는 루이 필립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비판한다. 도미에뿐 아니라 다른 화가들도 서양배로 정치풍자를 했다. 도미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화가 부케의 그림은 서양배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그 속에 씨앗처럼 정치가들이 모여 있다. 그런데 이미 썩어 과육은 거뭇거뭇하고 파리도 꼬인다.(그림4)

그가 캐리커처는 대부분 석판화(lithography)로 제작되었는데, 석



〈그림4〉 오귀스트 부케(Auguste Bouquet), 〈배와 그 씨앗(La Poire et ses Pepins.)〉, 석판화에 채색, 1833년.

판화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평판화의 일종이다. 석판 위에 크레용이나 유성 물감처럼 물이 스며들지 않는 도구로 그림을 그리고 잉크를 발라 찍어내는데, 뾰족한 철필이나 조각칼로 새기지 않고 바로 판 위에 그리기에 질감이나 자유로운 붓 터치를 살려 가장 회화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유화가 오랜 시간을 들여 단 한 장의 작품을 제작하는데 비해, 판화는 단기간에 많은 매수를 찍어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살린 도미에의 석판화 캐리커처는 신문에 실려 대규모로 유통될 수 있었다. 도미에가 살았던 19세기의 프랑스는 시민항쟁과 혁명, 쿠데타가 연이어 일어나던 정치적 격동기였다. 봉건군주제를 벗어나 시민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던 이 시대에 파리는 수많은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 도미에는 그의 시대의 문제를 한 컷의 캐리커처로 은유했고, 그의 촌철살인적인 위트는 이 시기에 대한 어떤 글보다도 우리에게 호소하는 바가 크다. 문맹률이 높던 당시 도미에의 재치 있으면서도 날카로운 정치풍자는 대중을 정치적으로 계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그는 타락한 정치가들에게는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을 던졌지만, 소시민들의 일상과 풍속을 다룰 때는 익살스러우면서도 애정 가득한 시선을 보이며 한 시대를 증언한다.

글_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꽃처럼 화사한

피렌체

5월 음악제

유럽여행을 할 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이탈리아-프랑스-영국’이 좋다고 합니다. 갤러리 투어를 전문으로 하는 가이드에게 들은 말인데, 역사와 예술사적 흐름을 좇자면 매우 합당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득 수년에 걸친 저의 유럽 여행 이력을 떠올려보니, 역사와 예술에 뛰어난 식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위의 순서, ‘이탈리아-프랑스-영국’ 순으로 떠나왔지 뭐니까? 저는 단순히 음악축제를 따라왔는데 말이죠. 특히 이탈리아는 저에게 ‘첫경험’이라서 유독 기억에 남는데요. 유럽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탈리아를 첫 여행지로 꼽은 이유는 어찌면 전혀 반대되는 성향에 끌리는 연애심리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지 않는, 정해진 길로만 똑바로 걷는 저에게 이탈리아는 무질서와 혼돈의 나라,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찬란한 문화유산이,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쏟아져 나왔으니 이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이해할 수 없지만 매우 끌리는 남아처럼, 이탈리아는 두터운 두려움을 비집고 자꾸만 발길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난 그곳에서 저는 피렌체라는 도시에 훌쩍 반했지 뭐니까?!

글 윤하정

KBS 앵커, TBC 방송기자등 방송활동과 YES24공연매거진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 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유학중이며 유럽 공연여행을 준비 중이다.



르네상스의 태동 피렌체(Firenze)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토스카나 주의 수도인 피렌체는 로마, 베니스, 밀라노, 나폴리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입니다. 영어식 표기로는 플로렌스(Florence). 과거 일대에 들꽃이 활짝 피어 ‘꽃의 도시’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그 이름답게 피렌체는 14세기 르네상스 문명의 태동지로, 이후 16세기까지 천재 예술가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며 작은 도시 곳곳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마키아벨리, 단테, 보카치오, 브루넬레스키,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미술과 건축, 철학 등의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마치 하늘의 문이라도 열린 듯 이 짧은 시간, 이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화려한 작품을 쏟아냈는데요. 덕분에 피렌체에 가면 처음에는 근사한 뷔페에 온 것 마냥 들뜨지만 돌아서면 황홀함에 취해 무엇 하나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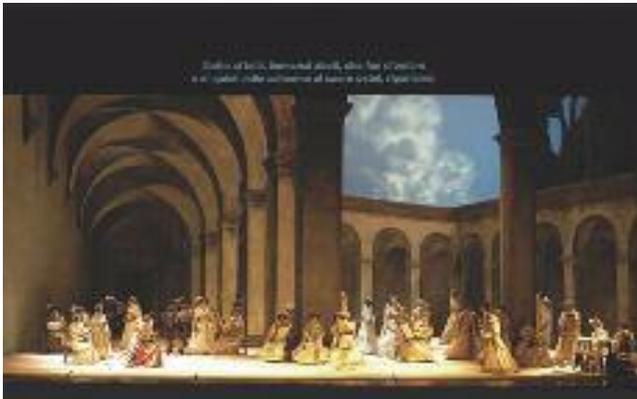
음악의 도시 피렌체

도시 곳곳에 흩뿌려진 화려한 건축물과 조각품, 그림. 그런데 피렌체는 ‘음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탈리아가 오페라의 본고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 피렌체에서 지금의 오페라가 탄생했습니다. 1597년 피렌체 바르디 백작 저택에 모인 지식인들은 고대 그리스극의 부활을 목표로 음악극 <다프네>를 상연했는데요. 바로 오페라의 효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악극의 악보는 남아 있지 않는데요. 그 뒤 1600년, 야코포 페리와 줄리오 카치니가 프랑스 앙리 4세와 메디치 가의 마리아의 결혼을 축하하는 <에우리디케>를 제작했고, 바로 이 작품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입니다. 오페라는 베니스에 보급되면서 번창해, 1637년 최초의 오페라극장 역시 베니스에 문을 엽니다. 이후 나폴리를 비롯한 이탈리아 전역은 물론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국으로 뻗어나가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페라의 탄생지인 피렌체는 음악적으로 크게 번영하지 못했습니다.

피렌체 5월 음악제

피렌체가 ‘음악의 도시’임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은 20세기 들어 시작됩니다. 1928년 시립 오케스트라가 창단되고, 1933년 ‘피렌체 5월 음악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수많은 오페라축제가 여름에 집중돼 있는 반면 ‘마조 무지칼레 피오렌티노(Maggio Musicale Fiorentino)’로 불리는 피렌체 5월 음악제는 도시가 갖는 아름다움을 충동원해 꽃이 만발하는 5월과 6월, 실내 공연장은 물론 시뇨리아 광장과 미켈란젤로 광장, 보볼리 공원, 베키오 궁전 등 노천극장에서 관광객들을 유혹하는데요. 76주년인 올해는 5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오페라와 발레, 클래식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요 오페라 작품으로는 베르디의 <돈 카를로>와 <맥베스>, 비발디의 <파르나체>, 벤자민의 <루크레티아의 능욕> 등이 공연되고, 때때로 주빈 메타 등 유명 지휘자가 이끄는 다양한 공연이 무료로 펼쳐지니 페스티벌 캘린더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료 야외공연에 나설 때는 수준 높은 공연을 도저히 중간에 박차고 나올 수 없을 테니 간이 의자나 방석을 잊지 마세요.

나만의 특별한 피렌체



앞서 밝혔듯 피렌체에는 학창시절 세계사와 미술시간에 배웠던 수많은 인물들의 작품이 그야말로 ‘널려’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이죠. 140년에 걸쳐 지어진 블루벨레스키의 두오모,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 르네상스 회화의 걸작들을 소장하고 있는 우피치 미술관은 물론이고 아르노 강가와 그 강을 가로지르는 베키오 다리 등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자기만의 특별한 여행 루트를 짜는 것도 피렌체를 제대로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산재해 있는 많은 것을 무턱대고 만나는 것보다는 건축, 회화, 조각, 음악 등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피렌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에게 피렌체는 ‘영원의 도시’ 인데요. 책과 영화로 수없이 접한 <냉정과 열정 사이>의 주인공들처럼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피렌체에서 느끼고 싶었습니다. 15세기 찬란한 문화유산이 여전히 생생히 살아 숨 쉬는 곳, 그래서 당



시 예술가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잠시 ‘과거’로, 아니 ‘변하지 않는 시간’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복원과 복원을 거쳐 마치 영원한 듯 그 많은 과거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있는 피렌체. 두오모 꼭대기에 올라 오랜 지빛 피렌체를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처럼,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처럼, 단테의 신곡처럼요. 물론 이것들 역시 거듭되는 복원과 재해석을 통해 처음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접하는 사람에 따라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이겠지만,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닐까요.

피렌체는 지리적으로 북쪽의 밀라노와 베니스, 남쪽의 로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들 도시를 여행하며 기차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피렌체만으로도 벅차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인근 소도시에서 또 다른 멋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는 사탑으로 유명한 도시 피사,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을 자랑하는 시에나, 삼나무와 올리브 밭이 어진 구릉위의 도시 피에솔레 등이 모두 피렌체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피렌체의 화사한 햇살이 그리네요. 유럽인들에게도 이탈리아는 꼭 가보고 싶은, 꼭 가봐야 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여행했다고 하면 되묻곤 하죠, 어디가 가장 좋았느냐고요. 물론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피렌체’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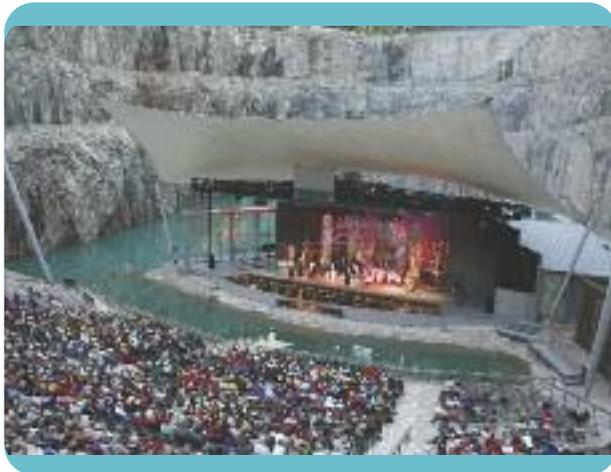


꾸리찌바 오페라 데 아라메

꾸리찌바는 브라질에서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처럼 유명한 도시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브라질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은 곳이다. '유에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라고 평가했다. 브라질 남부 파라나 주의 주도인 꾸리찌바의 인구는 180만 명이다. 파라나는 1960년대 세계 커피 생산량의 3분의 1을 생산하던 곳이다. 지금은 브라질의 '환경 수도'로 명성이 높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필수 방문 코스가 있다. 페드레이라스 공원에 있는 '오페라 데 아라메' (Ópera de Arame)다. 건축가 도밍고스 봉게스탑스가 설계한 건물로 '아라메'란 포르투갈어로 쇠줄, 철사라는 뜻이다. 230t의 쇠파이프와 철근으로 건물의 골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유리와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로 벽과 돔 천장을 꾸몄다. 1991년에 문을 연 이 오페라

극장은 80명의 기술자가 불과 두 달 만에 완공했다. 주변의 암벽 때문에 소리가 잘 울려 음향 조건이 좋다. 철망 구조 사이로 하늘과 호수와 폭포, 열대림이 보인다. 방문객들은 철망으로 된 인공 호수 위의 다리를 건너야 극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원래 이곳은 채석장이었다. 험한 웅덩이로 버려져 이곳을 자연친화적인 공연장으로 만든 것이다. 버려진 땅을 시당국이 저가에 구입해 주변 지역을 자연 상태로 복원하고 오페라 극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했다. 극장 아래에는 암벽을 깎아 만든 인공 호수가 있고 옆에는 높이 10m의 인공 폭포가 있어서 자연의 품에 안겨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객석 수는 2100석이며 입석까지 포함하면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리모델링한 후 안전 문제를 고려해 관객수를 164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테너 호세 카레



라스, 가수 폴 매카트니 등이 이곳 무대에 섰다. 이 무대를 거쳐간 유명 아티스트의 이름이 극장 뒤편 암벽 위의 팻말에 새겨져 있다. 오페라 데 아라메는 기념 엽서에 등장할 만큼 생태 도시 꾸리찌바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일반 방문객을 위해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개방한다(월요일은 휴관). 지하에 해당하는 지상부에는 전시관이 있고, 시의 홍보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옆에 위치한 암벽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방문할 때마다 부착해 놓은 기념패가 보인다. 극장 옆에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무대 '파울루 레민스키 문화 공간'이 있다. 꾸리찌바에는 건물의 대부분이 재활용되고 있다. 오래된 가구공장이 꾸리찌바 도시계획연구소로 바뀌고, 탄약창이 연극관, 육군본부가 문화재단, 주물공장이 대중 쇼핑몰, 오래된 철도 역사가 철도박물관, 양초 및 아교공장이 어린이를 위한 창조센터로 변신했다. 꾸리찌바는 브라질에서 유럽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도시 중 하나다. 1943년 프랑스의 도시 계획가 아가쉬를 초청하여 유럽식의 도시 계획을 한다. 방사형 도로 계획은 파리 구 도심의 방식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자동차 붐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나마 방사형 도로를 제외하면 공공 자금 부족으로 실행되

지 못했다. 그 결과 무분별한 도시 성장이 계속됐다. 1971년까지 해도 꾸리찌바에서 녹지면적은 주민 1인당 0.5 평방미터에 불과했다. 당시 레르네르는 시 전역에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마련하는 '그늘과 신선한 물'이라는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무질서한 도시 성장이 배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변 교외 지역의 신규 개발을 촉진했다. 대부분의 하천을 복개했고 습지와

계곡을 침식해 들어갔다. 그 결과 배수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지하를 파야 배수사업이 가능해졌다. 강과 하천이 수시로 범람했고 홍수가 도심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강을 콘크리트 컨테이너로 싸는 대신 작은 도랑을 건설하고 그 강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인공 호수를 만들었다. 이과수 공원, 동물원, 조깅 코스가 조성되었다. 꾸리찌바에서는 하천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까지도 철저히 개발을 규제하면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홍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천에 인접한 지역에 선형공원을 개발하고 우수지 역할을 담당하는 호수를 조성했다. 도시 면적의 5분의 1이 공원 녹지다. 버려진 스퀘어 하치장이나 채석장을 공원으로 만들었다. 거리를 따라 1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1970년에 인구 1명당 1 평방미터에 불과하던 녹지면적이 현재 52배나 늘어났다. 건물

을 지을 때 녹지 공간을 확보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 도시의 생명력은 주차장 면적보다 공원 면적이 더 많을 때 생겨난다. 꾸리찌바는 친환경 도시다. 인



구는 현재 1800만명. 곳곳에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다. 도심의 상점가는 보행자 전용 구역이다. 1인당 자가용 보유율이 브라질에서 2위지만, 휘발유 소비량은 브라질 도시 평균의 30%에 불과하다. 자동차 한 대당 사고율도 가장 낮다. 전체 통근자의 75%가 버스를 이용한다. 버스에 승차하기 전에 요금을 선불하는 직통 급행버스를 도입해 승차차 시간을 단축하면서 시간당 3.2배나 많은 승객을 실어나르고 있다. 방사선 노선에서는 3층 버스가 승객 300명을 태워 날랐다. 속도도 지하철처럼 빨랐지만 건설 비용은 8분의 1



에 불과했다. 매일 200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 요금을 징수하는 버스 공무원을 줄여 예산도 절감하고 엔진 공회전 시간을 단축시켜 대기오염을 최소화했다. 꾸리찌바의 맑은 공기를 깡통에 담아 1달러짜리 관광 상품으로 판매할 정도다. 버려진 채석장을 활용해 공연장으로 만든 곳은 스웨덴에 또 하

나 있다. 라트비크에 있는 달할라 오페라(Dalhalla Opera)다. 이탈리아의 베로나 오페라 축제, 핀란드의 사본린나 오페라 축제에 버금가는 스웨덴의 명물이다. 3억6000만년 전 지름 4km짜리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는데 그 충격의 여파로 남아 있는 것이 스웨덴에 있는 실리안 호수와 주변의 숲이다. 그 중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석회석 채석장이 있던 곳에 야외 오페라

극장이 만들어졌다. 석회석을 계속 캐다 보니 길이 400m, 너비 175m, 깊이 60m의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석회석 생산을 중단한 이곳에서 오페라를 상연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오페라 가수 겸 라디오 프로듀서 출신인 마가레타 텔포르였다. 여름 오페라 페스티벌 무대를 오랫동안 물색해오던 차에 1991년 이곳을 지나다가 버려진 석회석 채석장을 발견하고 무릎을 쳤다. 주변의 교통이나 공장 소음에서 벗어나 있고 거대한 암벽 자체가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달할라'라는 이름은 바그너의 오페라에 나오는 '발할라'에서 따왔다. 1993년에는 정식 개막에 앞서 언론과 관객을 초청해 시연회를 성공리에 열었고 곧이어 '발할라의 친구들'이라는 후원회를 조직했다. 객석수는 2600석으로 늘렸고 주변에 주차장도 확보했다. 첫 공연은 1995년 6월 21일에 막이 올랐다. 그 후 달할라 오페라에서는 매년 6월부터 9월초까지 여름 야외 오페라를 상연하고 있다. 오페라는 매년 다섯 작품을 올린다. 매년 1만여 명의 관객이 이곳을 찾는다. 운석과 호수, 석회암이 만들어진 천혜의 야외 오페라 무대가 된 것이다. 음악만 듣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 우주와 시간과 공

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이다. 거대한 자연의 일부가 되어 함께 호흡하는 순간이다. 객석수는 약 4000석이다. 제작비의 95%를 티켓 판매로 충당하고 있다. 주변이 조용한 숲으로 둘러싸인데다 무대와 객석이 충분히 깊어서 오페라 공연을 할 때는 마이크 확장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음향 전달이 매우 뛰어나다. 오페라를 상연할 때는 스웨덴어와 영어 자막을 제공한다. 오페라 공연뿐만 아니라 합창, 심포니 콘서트, 재즈, 록, 팝 공연도 열린다. 1998년에는 외국 오페라단이 처음 이곳을 방문했다. 라트비아 국립 오페라가 '나부코'를 상연했다. 2005년에는



모스크바 볼쇼이 오페라단이 '투란도트'를 들고왔다. 올해는 바그너 탄생 200주년을 맞아 콘서트 형식의 바그너 오페라 '라인의 황금'도 공연한다. 인근에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테너 유시 비올링 박물관이 있다. 달할라는 라트빅에서 북쪽으로 7km, 스톡홀름에서 280km 떨어진 곳이다. 스톡홀름에서 라트빅까지는 기차로 3시간 30분 걸린다. 실제로 관객의 3분의 1 가량이 스톡홀름 등 수도권에서 온다. 공연 시즌에는 라트빅 중앙역과 시내 주요 호텔에서 공연장까지 셔틀 버스를 운행한다.

클 이장직

중앙일보 음악전문 기자를 역임하고 「위기의 아트센터」, 「레인보우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월간 객석> 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

Verdi

올해 초 이탈리아 클래식계엔 작은 논란이 있었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라 스칼라”의 음악감독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올해 첫 작품으로 베르디를 제쳐두고 바그너의 작품을 먼저 무대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한마디로 이탈리아에서 고국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베르디를 제치고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의 공연을 먼저 무대에 올린 것이 자존심 상한다는 거였다. 아마도 이것은 올해가 19세기 오페라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이 두 거장, 주세페 베르디(1813~1901)와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가 태어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인지라 벌어진 일이 아닐까 싶다. 베르디와 바그너는 같은 시대, 그것도 같은 해에 태어난 최고의 작곡가이자 라이벌이다. 서로 추구했던 음악세계가 확연히 달랐던 두 사람이었지만 여러 모로 늘 비교의 대상이 됐고 동갑내기인 자존심이었을까 생전에 베르디와 바그너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만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서로 피했다고 전해지는데 오페라 역사에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이 두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을 경쟁적으로 무대에 올리고 있는 지금의 세계 음악계의 모습만 봐도 이 두 사람의 경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세계 음악팬들은 철학적이고 무거운 바그너보다는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베르디를 더 사랑하고 있다. 표현을 달리하면 베르디가 더 폭넓게 사랑을 받고 있고 바그너는 마니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탄생 20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나라의

모습만 봐도 그렇다. 국립오페라단, 서울시향 등 베르디를 무대에 올리는 곳이 많은 데 비해 바그너 연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은 베르디의 쉽고 대중적인 멜로디 라인과 인간의 내면을 울리는 극적인 힘이 상대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와서가 아닐까 싶다. 오페라를 즐기는 관객의 입장에서든 극을 압축해도 장장 6시간에 달하는 바그너의 형이상학적인 관현악 위주의 악극보다는 성악가들의 기교와 감성적인 아리아가 추축이 되는 오페라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 베르디의 오페라가 국내무대에 압도적으로 자주 오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베르디는 88년의 생애 동안 26편의 오페라를 작곡했고 이 중 반 이상이 지금도 무대 위에서 연주되고 있다. 특히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 등은 세계 여러 나라의 오페라 극장에서 핵심 레퍼토리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베르디의 성공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베르디는 천부적인 음악 재능을 타고났지만, 가난해서 어린 시절 전문 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베르디에게 작곡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고 성공하려면 당대 최고 인기 장르인 오페라를 작곡해야만 했다. 그러나 남들보다 늦게 출발한 음악가의 길 그것도 26살의 나이, 음악의 길이 열리던 순간 그는 자식 둘과 아내를 잇달아 잃는 불운을 겪었다. 보통사람 같았으면 3년간 매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제대로 숨이나 쉴 수 있었을까.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베르디는 오페라 〈나부코〉로 스타 작곡가가 됐다. 그리고 힘들게 얻은 성공만큼 돈과 성공에 집착했다. 작품을 써도 많은 관객이 즐길 수 있는 쉽고 대중적인 작품을 써야 한다고 믿었고 그 결과로 사람의 내면을 끌어당기는 탄탄한 드라마에 청중을 쥐락펴락하는 선율성 강한 음악, 특히 성악적인 기교와 화려함의 정점을

보여주는 아리아를 추구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삶이 험난해서 였는지 애잔하고 비감어린 비극 작품을 주로 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평생 비극 작품만 했던 베르디가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 희극이란 점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진지한 비극을 주로 써왔던 베르디가 여든 살에 이르러 오페라〈팔스타프〉를 통해 기분 좋은 반전을 보여줬다. 높고 뚱뚱하지만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착각한 주인공이 유부녀들을 유혹하려다 혼쭐나는 이야기를 보여주며 ‘이 세상 모든 것은 장난이 라네. 사람은 누구나 광대로 태어난 것일’이라며 인생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베르디는 오페라〈팔스타프〉를 통해 ‘우울하고 심각한 성향의 베르디가 희극 오페라를 작곡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한 로시니의 비평을 한 번에 날려버렸고 평생에 성공적인 희극 오페라를 남기는 것이 소원이었던 자신의 꿈도 이뤘다. 이것은 88살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창작의 열을 올렸던 열정의 베르디였기에 보여줄 수 있었던 반전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리고 사후 유언을 통해 그동안 모았던 재산 대부분을 기부했다. 가난한 음악가를 위한 시설 ‘위안의 집(Casa di Riposo per Musicisti)’을 지어 재정적으로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는 음악가들을 지원했는데 그가 오페라를 얼마나 사랑했고 오페라를 지탱해줬던 음악가들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요즘 클래식계에는 탄생 200주년과 때를 같이해 베르디의 일대기를 살필 수 있는 오페라 음반들이 참 많이 나왔다. 명 지휘자들과 함께 한 베르디의 대표 작품을 편집앨범으로 만나볼 수도 있고 영원한 프리마돈나 마리아 칼라스를 통해 베르디의 감동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앨범도 다시금 발매가 됐다. 그리고 베르디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엿볼 수 있는 음반 등 각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베르디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19세기 오페라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하는 베르디의 작품을 통해 오페라의 즐거움을 재점화해본다.

클. 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등, 라디오·TV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Performances

뮤지컬 “책과 콩나물”

일 시 | 5. 3(금) 11:00/13:00
5. 4(토) 11:00/14:00
5. 5(일) 11:00/14:00/16: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
주 최 | 동그라미그리기

■ 공연개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명작동화를 각색하여 노래와 안무, 배우 연기를 통한 뮤지컬로 제작

■ 작품내용

엄마와 단둘이 사는 책은 엄마의 심부름으로 젖소를 팔러 장에 가는 길에 이상한 할아버지와 이상한 공 한 알과 젖소를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화가 나서 공을 창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창밖에는 엄청 굵은 줄기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제9회 울산극동방송 전속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5. 9(목)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5,000
주 최 | 울산극동방송 전속여성합창단

■ 공연개요

울산극동방송 전속여성합창단은 창단이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아홉번째 정기연주회

■ 작품내용

- 시편 : 다윗 왕 시편의 합창모음
- 섬김 : 섬김을 통한 사랑의 노래를 합창
- 사랑 : 사랑을 통한 세상의 화합을 합창

제6회 울산 다자녀 가정 행복한마당

일 시 | 5.11(토) 15:00
장 소 |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경상일보

■ 공연개요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제6회 울산다자녀가정 행복한마당을 개최

■ 작품내용

- 가족장기자랑, 공연
- 레크레이션(가족퀴즈, 게임)
- 캐릭터 댄스

뮤지컬 “후토스 마을에 온 백설공주”

일 시 | 5.11(토) 11:00/14:00/16:00
5.12(일) 11:00/14: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30,000 · S/25,000 · A/20,000
주 최 | (주)엠에스뮤지컬컴퍼니

■ 공연개요

KBSN의 어린이 애니메이션 후토스를 주제로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는 율동과 노래를 통해 아이들이 배우들과 소통하는 참여형 뮤지컬

■ 작품내용

신나게 놀고 집으로 돌아오는 후토스들이 나쁜 왕비에게 쫓겨난 백설공주와 만나게 되는데...

위드아트 정기연주회 “클래팍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5.12(일)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000
주 최 | 문화예술기획 위드아트

■ 공연개요

클래식과 팝, 두 음악의 장점만을 융합한 신개념 음악 클래팍으로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며 재즈와 함께 신나는 무대를 구성

■ 작품내용

- 클래팍 : 산길, 내마음 깊은곳에, 마음하나, 기타림 외 4곡
- 재즈 : End Of The First Set, Blue Bossa 등 다수

Spring Concert

일 시 | 5.14(화)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 공연개요

봄의 밝음과 희망, 대학생들의 젊음과 활기의 향연으로 시작을 의미하는 꿈과 희망의 음악회

■ 작품내용

- J.Strauss – Tritsch Tratsch Polka
- C. Saint Saens – The Carnival of the Animals
- Mozart's Medly
- B. rossrte
- Gabrivl's Oboe 등

울산뮤즈스트링앙상블 창단연주회

일 시 | 5.15(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뮤즈스트링앙상블

■ 공연개요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출신 연주자들의 모임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실내악 연주공연

Blue Valentine(블루발렌타인)

일 시 | 5.16(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더클래시안

■ 공연개요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한 프로그램으로 작곡가와 연주자, 관객이 서로에게 공감과 희망을 주는 소통의 퍼포먼스 공연

■ 작품내용

- Arensky Piano Trio NO.1 Op.32 D Minor
- Bottesini Piece for Double Bass Solo "Elegy"
- Beethoven Trio for Clarinet NO.4 in B flat Major Op.11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일 시 | 5.18(토) 11:00/14:00/16:00
5.19(일) 12:00/14: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
주 최 | 바위처럼

■ 공연개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세계명작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노래와 안무, 배우 연기를 통한 뮤지컬로 제작하여 아이들에게 성실함과 유비무환의 교훈을 주는 공연

■ 작품내용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가 커가자 자립심을 키워 주기 위해 자신의 집을 짓고 살 것을 명한다. 집을 나온 아기돼지 삼형제 중 첫째는 지푸라기를, 둘째는 나무를, 막내는 벽돌로 집을 짓고 산다. 그러던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지나가다 아기 돼지를 보게 되고 아기돼지를 잡아먹으려는 늑대와 아기돼지 간의 공방전이 시작되는데...

2013 제3회 울산 피아노아카데미 정기연주회

일 시 | 5.21(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000

주 최 | 울산피아노아카데미

■ 공연개요

'러시아 별빛의 밤(Russian Starlight Night)'이라는 컨셉으로 러시아 작곡가들로 이루어진 피아노 실내악 연주

■ 작품내용

- Scriabin Prelude and Nocturne
- Glinka Capriccio on Russian Themes
- Tchaikovsky Nutcracker Suite
- Rachmaninov Romance and Waltz 등

김정화 무용단 정기공연 "인내천"

일 시 | 5.23(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김정화무용단

■ 공연개요

한국무용의 올바른 계승발전과 한국 창작무용 및 전통춤을 교육, 홍보하고자 함

■ 작품내용

- 1부 창작무용(처용의 꿈)
- 2부 전통무용(승무, 지전춤, 교방입춤, 장구춤, 부채춤, 축원무)

뮤지컬 "시카고"

일 시 | 5.24(금) 19:30

5.25(토) 15:00/19:30

5.26(일) 15: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V/120,000 · R/100,000

A/80,000 · B/60,000

주 최 | (주)울산방송

■ 공연개요

시대를 뛰어넘은 작품성으로 37년간 브로드웨이와 전 세계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 작품내용

남편과 여동생을 살인하고 교도소에 들어온 빌 보드 배우였던 벨마첼리는 교도소의 간수인 마마 모튼의 도움으로 모든 언론의 관심을 끄는 가장 유명한 죄수이다. 그러나 코러스 걸 록시 하트가 자신의 유명세와 변호사 마저 빼앗아 가자, 벨마는 분개를 하고 곧 록시를 설득하여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하는데...

나도 오페라스타 "오페라 버섯피자"

일 시 | 5.25(토) 17:00/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0,000 · 학생 10,000

주 최 | 울산오페라단

■ 공연개요

종합예술의 결정체로 불리는 오페라에 울산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연함으로써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게 하고 새롭게 시도 되는 시민참여 오페라

■ 작품내용

19세기 이태리를 배경으로 20세기 최고의 희극 오페라의 대가라고 불리는 '세이무어 바랍'이 만든 블랙코메디 'La Pizza Con Funghi(버섯피자)'는 포르마지오 백작과 부인 볼룸뚜아, 볼룸뚜아의 연인(불륜) 스크르피오, 하녀 포비아까지 4인의 남녀가 저택이라는 공간에서 벌이는 다소 황당하기도 하고 반전도 있는 블랙코메디 오페라

제9회 공업탐청소년예술제

일 시 | 5.25(토) 19:00

장 소 |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공업탐청소년

■ 공연개요

세상의 중심인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끼를 발산함으로써 탈산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활기찬 축제의 장 마련에 기여

2013 창작국악 관현악 "대바람소리 IV"

일 시 | 5.28(화)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처용국악관현악단

■ 공연내용

울산 시민들의 예술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전통 문화의 보존 발전을 위한 연주

■ 프로그램

- 창작 국악관현악
- 관현악과 소리의 만남
- 관현악 협연
- 창작국악관현악
- 관현악 협연
- 관현악과 사물의 만남

제4회 브리오플루트 색소폰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5.29(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브리오예술단

■ 공연내용

창단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브리오 플루트 · 색소폰 앙상블의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 사랑의 서약
- Fassung fur Flotenquartett
- Turkish March
- Yodel Song
- 사랑을 위하여 등 다수

울산매일과 함께하는 제14회 울산사랑 환경콘서트

일 시 | 5.31(금)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매일신문사

■ 공연개요

울산시민의 환경의식제고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재즈 피아노 공연

Exhibition

제16회 드로잉 드로잉 회원전

기 간 | 5. 2(목)~5. 7(화)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드로잉드로잉회

■ 전시내용

다양한 잠선면으로 이루어진 드로잉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기법으로 표현하였으며 회원 15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드로잉 작품 50점 전시

제5회 김승심 개인전

기 간 | 5. 2(목)~5. 7(화)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김승심

■ 전시내용

우리들 마음 속 아련한 추억으로 간직된 농촌의 정겨운 모습들을 파스텔로 그린 미술작품 30점 전시

제21회 김창한 개인전

기 간 | 5. 2(목)~5. 7(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김창한

■ 전시내용

울산의 상징인 간절곶을 비롯한 진하해수욕장의 명선도, 바다 일출, 야경, 윈드서핑 등 사계절 아름다운 바다의 정취를 담은 미술작품 30점 전시

제10회 시민과 함께하는 회원작품전

기 간 | 5. 9(목)~5. 14(화) 6일간
장 소 | 제2,3전시장
주 최 | 울산교육삼락회

■ 전시내용

울산시민과 원로 교육자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시민들과 함께 전시함으로써 문화도시 울산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퇴직 교원 및 시민들의 작품을 3개 부문으로 공모, 접수, 심사하여 입상작품 70점 전시

제4회 빛그림 포토클럽 회원전

기 간 | 5. 9(목)~5. 14(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빛그림 포토클럽

■ 전시내용

빛그림 포토클럽의 네 번째 정기회원전으로, 울산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테마로 한 사진작품 60점 전시

제5회 울산미술대전 초대작가전

기 간 | 5. 16(목)~5. 21(화), 6일간
장 소 | 제2,3전시장
주 최 | 울산미술협회

■ 전시내용

울산광역시미술대전 6개 부문의 초대작가, 추천작가, 운영위원들의 작품 전시로,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문인화 등 미술작품 총 220점 전시

제13회 울산대 조소과 졸업작품전

기 간 | 5. 16(목)~5. 21(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울산대 조소과

■ 전시내용

다양한 조형성을 바탕으로 현대 미술을 생활 속에서 느껴보고 독특한 자기 발상적 사고와 감성을 바탕으로 표현된 작품들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삶을 생각해 보자는 작품 전시로 졸업 예정자 12명의 조소작품 총 30점 전시

제17회 울산광역시미술대전 1부

기 간 | 5. 23(목)~5. 28(화), 6일간
장 소 | 제1,2,3,4전시장
주 최 | 울산미술협회

■ 전시내용

지역 신진작가 발굴 및 울산 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울산광역시미술대전의 작품을 공모·접수·심사하여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서예, 문인화, 공예(디자인) 6개분야의 작품을 종합대상,

서예 대상, 우수상, 특별상, 특선입선으로 구분 심사하여 입상한 작품 중 전체 특선 이상과 한국화, 서양화, 공예(디자인), 조각, 서각분야 작품전시

제17회 울산광역시미술대전 2부

기 간 | 5. 30(목)~6. 4(화), 6일간
장 소 | 제1,2,3,4전시장
주 최 | 울산미술협회

■ 전시내용

지역 신진작가 발굴 및 울산 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울산광역시미술대전의 작품을 공모·접수·심사하여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서예, 문인화, 공예(디자인) 6개분야의 작품을 종합대상, 서예 대상, 우수상, 특별상, 특선입선으로 구분 심사하여 입상한 작품 중 전체 특선 이상과 서예문인화 분야 작품 전시



〈김정걸 작 - 푸른솔〉



〈김창한 작 - 일출〉

당신의 **블링블링**한 ART 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의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중한 여유
가슴속에서 퍼져 나오는 감동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함께 합니다.

☘️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일반회원 (만19세이상)	가족회원 (4인가족)	청소년회원 (만7세이상~ 만18세이하)	단체회원 (10인기준)	비고
1년	20,000	40,000	10,000	100,000	
3년	50,000	100,000	25,000	250,000	15%할인
5년	80,000	160,000	40,000	400,000	20%할인
10년	150,000	300,000	75,000	750,000	25%할인

※ 단체회원은 1인 추가시 10,000원

회원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간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회원가입하실 때 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회원가입비(문화예술회관)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비납부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시 30%이내 할인
(일반회원 2매, 청소년회원 1매, 가족회원 4매, 단체회원은 본인에 한함)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아트 클래스 등록 시 30%이내 할인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초대공연 시 초대권 우송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할인혜택 부여(일부 대관공연제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권 5%)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울산시립합창단

봄꽃음악회

5. 16 오후 8시
태화강대공원 특설무대